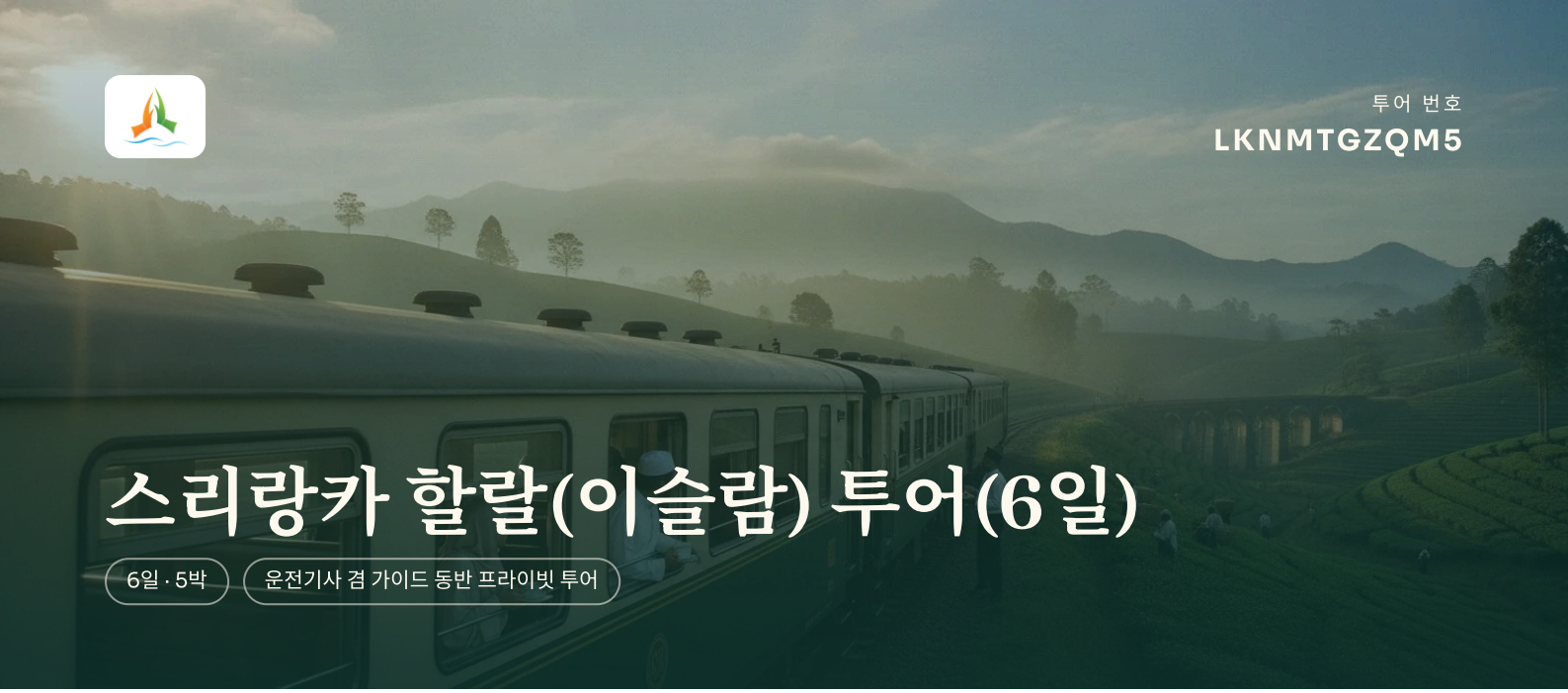


투어 번호
LKNMTGZQM5

스리랑카 할랄(이슬람) 투어(6일)

6일 · 5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6일간의 프라이빗 투어는 스리랑카에 대한 편안하고 무슬림 친화적인 소개로 설계되었으며, 중앙 고지대를 거쳐 콜롬보의 해안으로 돌아옵니다. 캔디의 식물원, 누와라엘리야 주변의 차 재배지, 두 지역 사이의 도로에 있는 폭포와 플랜테이션, 그리고 출발 전 콜롬보의 역사적, 상업적 지구를 탐험하는 마지막 날을 포함합니다.

여행자들은 빽빽한 관광 일정보다는 섬의 문화와 유산을 여유로운 속도로 둘러볼 수 있으며, 정원을 산책하고 운영 중인 차 공장을 방문하고 식민지 시대 언덕 마을을 직접 탐험할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여행은 콜롬보 공항 도착부터 최종 출발까지 모든 운전과 물류를 처리하는 영어 구사 운전 가이드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프라이빗 투어로 진행됩니다.

호텔 숙박, 입장료, 비자 수수료, 항공료 및 개인 경비는 별도로 준비되며 투어 가격에 포함되지 않지만, 투어 자체의 모든 현행 세금 및 서비스 요금은 포함됩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피나왈라 → 캔디

콜롬보 국제공항에 도착하시면 전용 기사 겸 가이드가 마중 나와 에어컨이 설치된 차량으로 캔디까지 모십니다.



피나왈라

공항에서 캔디로 가는 길은 고산지대로 향하는 도중 피나왈라를 지나게 됩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2 캔디

캔디 시내의 식물원을 중심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페라데니야 왕립식물원

19세기 초에 조성된 이 식물원은 넓은 부지에 난초, 향신료 식물, 약용 식물을 포함해 4,000종이 넘는 식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고 희귀한 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우는 가로수길은 꽃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포알나무, 흔들리는 현수교, 작은 산울타리 미로, 오르기 좋은 구불구불한 나무 등이 볼거리입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3 캔디 → 누와라엘리야

누와라엘리야로 가는 길에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폭포 중 하나와 운영 중인 차 농장을 둘러봅니다.



람보다 폭포

람보다 폭포는 푸셀라와 인근에 위치한 스리랑카에서 11번째로 높은 폭포로, 세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간 구간은 다리 바로 위 A5 도로에서 볼 수 있지만 다른 구간에 비해 규모가 작으며, 상단 구간은 큰길에서 일부만 보입니다. 다리 직전의 작은 길을 따라 올라가면 상단 폭포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오르는 길이 다소 힘들 수 있습니다.

A.Savin · FAL

차 공장 및 농장

차 공장과 농장을 방문하여 실론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1824년 영국인들이 중국에서 차나무를 실론으로 들여와 페라데니야 왕립식물원에 비상업적 목적으로 처음 심었습니다. 1852년 이주해 온 영국인 정착민 제임스 테일러가 캔디의 룰레콘데라 농장에 정착하면서 상업적 차 재배를 섬에 도입하였고, 이후 실론티는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Day 4 누와라엘리야

도보로 옛 영국 식민지 시대의 휴양도시를 둘러보는 하루입니다.



누와라엘리야 시내

누와라엘리야는 19세기와 20세기 초 영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던 고급 휴양 도시로, 거리 곳곳에 아름다운 코티지, 고풍스러운 빌라, 웅장한 저택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붉은 벽돌 우체국은 저렴한 엽서를 구입하기 좋은 곳입니다.

Abdul malik77 · CC BY-SA 4.0

퀸즈 빅토리아 공원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공원으로, 조용히 쉬어가기 좋은 장소입니다.



그레고리 호수

누와라엘리야에 위치한 호수로, 방문객들이 호숫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Rehman Abubakr · CC BY-SA 4.0

Day 5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여정은 콜롬보로 이어지며, 수도의 유서 깊은 모스크와 식민지 시대 유적, 쇼핑 지역을 둘러볼 시간을 갖습니다.



자미 울 알파르 모스크

붉은 모스크로도 알려진 이곳은 콜롬보에서 가장 오래된 모스크 중 하나입니다. 아랍 상인들은 서기 7세기, 스리랑카가 향신료와 비단 무역로의 거점이었던 시기에 처음 이 섬에 도착했으며, 그 이후로 줄곧 이 나라에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A.Savin · FAL



올드 라이트하우스와 옛 국회의사당

콜롬보의 유서 깊은 식민지 시대 건축물로, 도시 기념물 투어의 일부를 이룹니다.

weranga rajapaksha · CC BY-SA 2.0



갈 페이스 호텔과 갈 페이스 그린

유서 깊은 호텔과 그 옆에 펼쳐진 해안 녹지로, 오랫동안 콜롬보 생활의 한 부분을 이루어 온 곳입니다.

Mayakaru at English Wikipedia · CC BY 3.0



강가라마 사원

콜롬보의 유서 깊은 명소 중 하나로 꼽히는 불교 사원입니다.

AKS.9955 · CC BY-SA 4.0



국립박물관

콜롬보 국립박물관은 도시의 역사적 명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A.Savin · FAL



인디펜던스 스퀘어와 경마장

쇼핑몰과 부티크숍, 디자이너 매장이 모여 있고 다양한 나이트라이프도 즐길 수 있는 콜롬보의 쇼핑 지역입니다.

Charaka Ranasinghe · CC BY 2.0

Day 6 콜롬보 → 공항

아침 식사 후 체크아웃하여 공항으로 이동하며, 투어가 마무리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inclusive of, cost of fuel, parking & highway tolls.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r Guide throughout the tour.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Except for Credit Card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 Entry Visa Fees.
- International / Domestic Airfare.
- Any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